



2014년 출판산업을 관통한 가치사슬별 핵심 이슈들



기고 | 정세일(유폴러스연구소 연구위원)

2014년 출판산업의 핵심 이슈들

사람들은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의 인테리어가 어떤 색상이냐에 따라 시간의 체감 속도를 다르게 느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가 따뜻한 색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낀다고 한다. 반면 차가운 색이 주를 이루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원리를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기업들이 이러한 원리를 고객 대기 공간의 색상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하니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사람들이 시간을 체감하는 원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시간의 속도를 체감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파민은 기분이 좋을수록 많이 분비된다고 한다. 그리고 도파민의 분비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시간을 느리게 간다고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즉, 사람들은 기분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한 일상적인 경험보다는 새롭고 비일상적인 강렬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기억해야할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 반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만을 지속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제 2014년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12월이다.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각 산업계는 올 한해 동안의 시간 흐름의 빠르기를 각각 다르게 체감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국내 콘텐츠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출판산업계는 2014년 한 해 동안 시간의 빠르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2014년 출판산업을 관통했던 핵심 이슈들을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획 및 제작

전자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1인 출판 활성화 지속

세계 출판시장 매출에서 전자책 매출 비중은 2013년 기준 약 13%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전체 출판시장 매출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국내 전자책 시장의 규모는 약 1975억 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약 3250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약 5838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산업규모의 급속한 확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출판업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교보문고는 금년 4월부터 해외 원서의 전자책 서비스를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전자책 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기회요인을 창출하였다. 국내 출판산업에서 해외 원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이지만 그동안 국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는 전자책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교보문고는 금년부터 해외 원서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외 업체와의 제휴를 확대하면서 대학교재 및 전문서적 등을 중심으로 원서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국내 중소규모 전자책 제작사들이 글로벌 출판사인 하퍼콜린스(뉴스코퍼레이션의 자회사로 콜린스

영어 사전을 출판하는 출판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해당 출판사의 전자책 모바일 플랫폼과 앱을 제작하여 국내 유통은 물론 중국 유통을 대행하는 새로운 사례가 창출되기도 하였다.

한편 금년 하반기에는 크레마 원, 크레마 터치, 크레마 샷인 등의 전자책 단말기를 서비스 중인 예스24가 교육도서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 출판 기업 두산동아를 인수하였다. 예스 24의 두산동아 인수는 교육용 전자책 시장이라는 신흥시장에서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국내 전자책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장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전자책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 도서전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도 전자책과 디지털 1인 출판이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세계 102개국 7천여 출판사가 참여한 가운데 금년 10월 개최된 제66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국내기업인 삼성이 협력기업으로 참여해 별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전자책과 연관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비즈니스클럽 섹션 운영을 통해 전자책과 디지털 1인 출판 등 새로운 디지털 시대 맞춤형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전자책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된 2014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전자책 활성화와 관련하여 2014년에는 특히 국내에서도 출판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콘텐츠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1인 출판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1인 출판 서비스는 단순히 개인 소장용이나 선물용 책을 만들기 위한 1인 출판을 넘어 시장에서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교보문고의 디지털 1인 출판 서비스인 퍼플은 개인이 완성된 PDF파일을 제작하여 해당 서비스 사이트에 등록하면 전자책은 물론 원하는 만큼 종이책 출판도 지원하고 자사의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도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였다. 또한 일부 전자책 전문 기업들은 웹 소설 분야에서의 아마추어 작가를 발굴하는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책 콘텐츠 및 수익을 창출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책과 디지털 1인 출판 활성화 경향은 2014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5년에도 전자책과 디지털 1인 출판은 출판산업의 핵심 트렌드로서 그 질적 성장이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 및 소비
출판한류 성장 기반 강화 속 국내 출판시장 침체 지속

금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아마존닷컴에서 국내 출판사의 한글로 된 전자책 거래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아마존닷컴에서는 2014년 3월부터 한글로 된 한국 전자책 판매가 급증하였다. 2013년까지만 해도 아마존닷컴에서 유통되던 한국어 전자책은 70여권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014년 6월 기준 아마존닷컴에서 거래되는 한국어 전자책은 총 6개 출판사의 600여권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마존은 저자와 소형 출판사들이 아마존닷컴에 자유롭게 전자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인 '킨들 디렉트 퍼블리싱(KDP)'을 운영하는데 한국어 전자책은 대부분 이 시스템의 형태로 올려지고 주로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나 동포들에 의해 전자책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아마존닷컴에 올려진 한국어 전자책들은 하루 평균 10권 내외가 판매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전자책의 해외 진출은 중국시장에서도 강화되었다. 중국의 경우 전자책 육성 정책을 통해 2014년 기준 30억 위안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디지털 단말기를 통한 독서 인구가 40%를 넘어섰고 전자책시장 규모가 우리 돈을 기준으로 약 1조8천억 원(2014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내 전자책시장의 성장세에 대응하여 금년에는 국내 전자책 콘텐츠 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내 최대 전자책 콘텐츠 전문기업 중 한 곳은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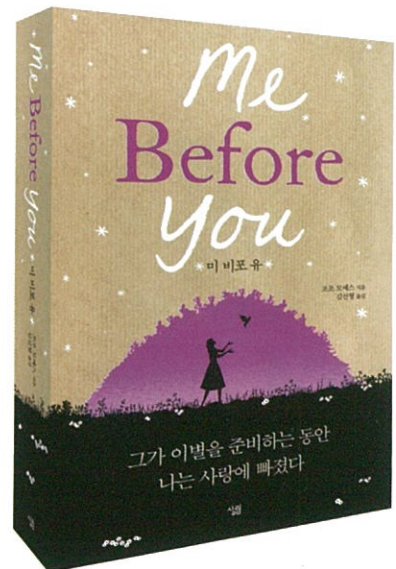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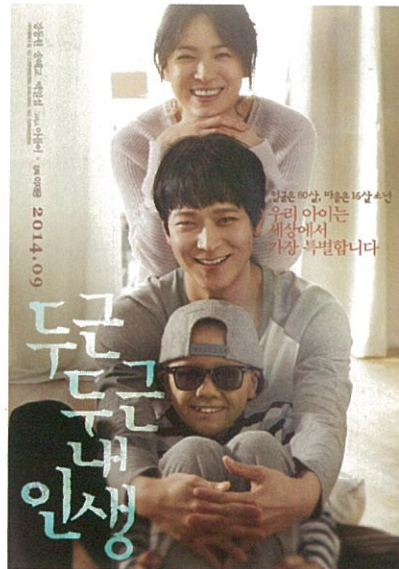
최대 인터넷 콘텐츠 유통기업인 텐센트(Tencent)의 모든 플랫폼(문학포털과 모바일 전용앱)을 통해 한국 소설의 중국어 서비스를 6월부터 개시하기도 하였다.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한류가 한창 진행 중인 중국에서 이들 인기 콘텐츠의 원천소스인 한국 장르소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내 전자책 전문 기업들은 바로 중국 소비자들의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주로 로맨스 소설을 소개하면서 이민호나 김수현 등 한류 스타를 일컫는 중국 내 신조어 '키다리 오빠' 마케팅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하였다.

올해에는 국내 중소출판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되었다. 한국중소출판협회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8월 개최된 2014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에서 중국 출판사인 지린출판그룹과의 공동 전시회 개최 및 저작권 상담 진행을 통해 에이전시에 의존하지 않고 중소출판사들이 직접 중국시장에 저작권을 수출입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였다. 한국중소출판협회와 지린출판그룹은 공동 도서 전시와 함께 '출판정보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출판물 교류 기반을 강화하였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출판물의 해외 진출 기반이 강화된 반면 국내 출판시장 불황은 지속되었다. 2014년 국내 출판시장에서는 미디어(영화 및 드라마)와 광고를 통해 노출되어 유명해진 책이 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선택되는 이른바 '미디어셀러' 현상이 강화되었다. 인터파크가 2014년 상반기 국내 베스트셀러 상위 100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미디어셀러에 속하거나 기존에 충성도 높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성작가들의 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별에서 온 그대>의 경우 2009년 첫 출판 이후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드라마로 만들어져 알려진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였으며 소설 <미비포유>는 'TV 책을 보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판매량이 급상승하였다. 또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나 <두근두근 내 인생> 등의 책도 드라마 및 영화가



드라마로 만들어진 후 판매가 급증한 '별에서 온 그대'



영화로 만들어진 후 판매량이 늘어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두근두근 내 인생'과 TV프로그램 방송후 인기를 얻은 '미비포유'

공개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며 영화 <변호인>을 통해 노출된 소설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역시 영화 개봉 이후 판매량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디어에 노출되지 못한 대부분의 책들이나 신인작가의 신작들은 출판시장의 불황 속에 판매가 부진하였다. 교보문고의 <2014년 상반기 도서판매 동향>에 따르면 매출 상위 20%에 해당하는 서적 독서 마니아층의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7.5%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또한 미래 출판시장의 주요한 소비자층인 10대 독자층의 판매권수 점유율은 2012년 5.5%에서 지난해 4.7%, 그리고 올해에는 4.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향후 미디어셀러의 강세나 10대 독자층의 판매권수 점유율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을 선제적으로 조속히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법·제도적 환경

도서정가제 개정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 강화

11월 21일부터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할인율을 15%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서정가제 개정 취지는 시장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하여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KDI 등은 개정 도서정가제가 도서가격을 높여 오히려 시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된 도서정가제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출판산업계에서는 불공정 계약 체결 방지와 저작권 관련자의 상생을 위한 기존 관행의 개선 노력이 추진되었다. 2월에는 출판 분야 저작권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원저작자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콘텐츠가 제작되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 관련 유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전자책 산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을 위한 '전자책 출판 분야 저작권상생 협의체'가 출범하였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판산업계 또한 다른 문화콘텐츠산업계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관행이 산업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출판 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출판산업계에 있어 2014년은 이처럼 다양한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교차했던 한 해였다. 현재의 출판산업은 역동적인 기술변화와 지속되는 성장 정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출판산업계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내 출판산업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에도 출판산업계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에 국내 출판산업이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재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2015년이 되길 바란다.☺